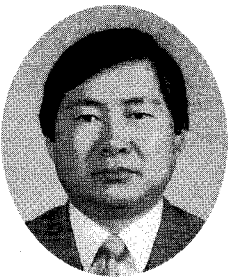




우리 農業과 農産物을 사랑하자

일상 먹는 농산물, 농업인들의 '정성·땀의 결정체'
우리농산물, 신뢰·애정으로 감쌀 때 '풍성한 식탁' 보장

■ 이규승 충남대 농화학과 교수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 있게 먹는 저녁 식탁!! 알맞게 익은 배추김치, 오이소박이, 그리고 각두기가 입맛을 돋구고 호박과 감자 그리고 두부가 들어간 된장찌개, 또 싱싱한 상추, 썩갯 그리고 채소류에 곁들인 찜장과 쌀밥 등등. 이것은 우리들 모두가 일상 먹고 있는 농산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는 것은 생산하는 농민들의 정성과 땀방울이 밑바탕이 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우리 농산물 말' 쓴 수입농산물, 소비자 우롱

UR의 농산물 협상이 한창이던 90년대 중반부터 「身土不二」라는 단어가 우리 국민에게 깊이 인식되었다. 이 말은 글자 그대로의 뜻보다는 "우리의 토양에서 재배하여 생산한 농산물이 우리의 몸에 가장 알맞은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우리 농산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일깨워 주었고 아울러 수입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여야 할 우리 농산물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부각시켰다고 본다. 그 당시 대부분의 농민들은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한 다짐을 굳게 하였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농산물 보다는 우리 농산물만을 애용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요즘에는 수많은 종류의 농산물이 수입되어 우리의 식탁에 오르 내리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우리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것이 소비자는 물론 감독 기관인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막중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많은 수입 농산물들이 우리 농산물로 둔갑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소비자의 입장에서 신도불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농업 분야도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우리 나라의 농업도 역시 농약, 비료 등 농자재의 효율적인 사용과 종자 개량을 비롯한 농업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획기적인 수확량의 증대를 가져 왔으며 소위 「예측 가능한 농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산량의 증대만을 목표로 수십년간 농업을 이끌어 온 결과, 우리의 농업 환경은 비료성분의 과잉에 따른 염류집적 등의 현상으로 상당한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 더욱이 시설 채소 재배지에서는 이런 현상이 가속화 되어 농민들에 대한 지도가 요망되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은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도를 꾸준히 증

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유기 농산물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 90년대 중반부터는 농림 당국도 소위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지 아래 보전 농업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이런 모든 이론을 종합하여 환경 농업을 주창하기에 이르렀다.

단계별로 거른 우리 농산물, 신뢰해야

사람의 건강에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는 공기, 물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매일같이 섭취하는 음식물의 비중이 더욱 클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생각은 당연하며 이런 생각의 바탕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은 우리의 꾸준한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농산물 중 잔류농약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농소정위원회를 만들어 소비자단체와 함께 시판 중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잔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시료의 채취 및 분석과정에 소비자단체의 관련인사들도 참여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물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의 출하 예정 10일 전에 시료를 채취하여 사전 검사(생산 단계 잔류농약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증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수만 점의 농작물을 대상으로 생산단계 잔류농약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주 소수의 시료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 출하연기나 폐기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적합 농산물들은 시장에 나가기 전에 가능한 제거시키려는

밀레니엄 論壇



노력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방송 매체나 여성 잡지에 흔히 야채(野菜)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본래 야채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재배하여 먹는 것보다는 산나물이나 들나물 등을 일컫는데 더욱 가까운 말이며, 일본인들이 주로 학술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학술적인 용어는 채소(菜蔬)라고 하며 순 우리말로는 남새라는 말이 있다. 채소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푸성귀와 나물을 총칭하는 말이므로 요즈음과 같이 취나물, 머위, 도라지 등이 재배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 정확한 뜻을 갖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원예학에서도 채소 원예학은 있어도 야채 원예학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고 싶다. 무엇보다도 내 것을 옳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며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내용을 깨우쳐 주어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다.

농업인에 애정 보일 때 '식탁 즐거움' 향유

얼마 전 수입 꽃게와 복어에 납덩어리가 함유되어 있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는 중국 현지에서 납을 넣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이따금씩

국민 모두가 우리 농산물을 신뢰하고 깊은 애정으로 보듬어 준다면 농민들은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더 좋은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곤 한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앞의 것은 고의성이 큰 반면에, 우리 농민들은 대부분이 실수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이다. 농촌의 노동력이 고령화되면서 농약에 대한 정확한 지식 부족과 농약 사용법에 대한 이해 부족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이유가 잘못된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들의 허물을 벗겨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행정 당국도

농민들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농민들도 좀 더 정확한 농사 정보를 숙지, 최상의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신토불이는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농산물 지킴이의 대명제라고 보며,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민과 농림 당국의 다각적인 노력도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여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올바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에 대한 사랑이 깊어 갈 것이며, 좀 더 정확한 농업 정보를 이해시켜 줌으로써 농민들이 능동적으로 건전한 농산물 생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우리 농산물을 신뢰하고 깊은 애정으로 보듬어 준다면 농민들은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더 좋은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의 생활도 항상 즐거울 것이다. **농약정보**